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10월, 가을 부흥회 개최기로

강사는 김선운 목사로 확정
온 교회 성도가 기도로 준비

당회는 오늘 10월에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강사를 선임하였다.

중헌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진리 체험을 목표로 하고, 나태해진 신앙을 기도와 말씀으로 재충전하면서 새로운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부흥 사경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가을 부흥 사경회는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의 성장을 위하여 미국 필라델피아 헌팅돈 벨리 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는 김선운 목사를 초빙하여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로 선임된 김선운 목사는 서울대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 복음 운동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템플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김 목사는 <기독교 신조해설>, <로마서 주석> (5권) 등의 저서가 있으며, 주경



김선운 목사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의 제자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을 부흥회와 강사 김선운 목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금번 집회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도록 착실하게 기다리자.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자
오늘 본당 앞에서 실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 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는 날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사랑의 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중헌프리즘

◎...한국의 초대 교회 시절에는 믿는 자의 결단이 결연했다. 예수 믿기 전의 술고래, 또는 जु담배를 피우는 백성들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면, 평생을 같이 했던 술과 담배 피우는 일들을 일시에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었다. 한 예로 담배대를 꺾어버리고, 술단지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용단이다. 옛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새로운 생활로 전환했던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대 전환이다. 하나님을 멀리 했던,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같이 하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는” 새 생명체로 바꾼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위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저 안타깝다.

미지근한 신앙보다는 뜨거운 신앙이 필요한 시대이다.

◎...최근의 청소년

◎...최근의 청소년 계층(중고등학생)의 일부가 일몰 시간이 되면 자살하고픈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계층은 여자보다는 남자쪽에 많이 있고,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마약과 본드를 흡입하고 부모 공경보다는 저주와 폭언을 일삼는 반항아로 탈선하게 된다.

교회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

는 일과 영적 치유로 거듭나는 놀라운 교육이 필요하다.

한 번의 충동원 전도로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속적으로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부둥켜 안고 살과 살이 맞닿는 체적적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문제 청소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자.

카메라 초점



▲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새가족헌영회

나의 태신자를 얻읍시다

1. 전도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 내 주변에서부터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발견합시다.
3. 이번에는 나도 반드시 참여합시다.

6월 28일은 나의 태신자를 봉헌하는 날

제2차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
6월 15일부터

그 동안 전교인이 참여하여 전개해오던 제1차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오늘로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제1교구를 기점으로 제2차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시작된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새로 정하고, 남녀 별도의 기도실을 통해 합하여 현재의 남자

기도실(나사렛홀 뒷방)을 24시간 연속 기도회 전용 기도실로 이용토록 하였다.

기도를 통한 영적 갱신과 배가운동을 위하여 마련된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에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적극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란다.

◆ 제2차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 기도 제목 ◆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 장로님들에게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소서.
3.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전도 운동(교인배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하소서(태신자 갖기, 교구 배가, 구역장 교육, 중헌금요찬양, 각 부서 및 위원회 배가를 위하여).
4. 선교 운동이 일어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5.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6. 중헌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허락하시어 순조롭게 건축되게 하소서.
7.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발전을 주시고, 학원이 진리 탐구의 장이 되게 하소서.
8. 재난을 당한 재미 동포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소서.
9.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그리스도의 사역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마4:12~25)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1. 사역의 시작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마4:12)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신 다음부터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박하신 사건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바로 유월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다음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는 것은 은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질, 이방의 갈릴리라는 다섯 지역을 언급했는데, 이 다섯 지역은 영토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섯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이 지역은 사사시대 이후 고난과 괴로움을 많이 당하여 영적으로 굶주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역은 작지만 인구가 많고 무역이 번창한 곳입니다. 또 앗수르시대 이후로 외국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갈릴리 지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서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오늘날 교회 성장의 중요한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2. 사역의 내용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4:17~19)

여기서 우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둘째는, 천국이 가까왔다고 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나라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의 왕권, 셋째, 완전한 구원, 넷째, 교회,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빛으로 오셨을 때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4:22, 23)

셋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이 마음속에 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에게는 강인하며, 인내심이 많고, 용기가 있으며, 시기 포착을 잘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될 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모든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

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비로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과 연결점은 그의 체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프스는 그의 저서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케로스 감옥에 갇혔다. 이는 헤롯이 정치적인 소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비리와 부정과 불의를 공격하자 헤롯은 걱정을 하여 세례 요한을 마케로스라는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연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구자로서 인정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해나가셨습니다. 심지어 이적을 베풀 때나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무엇 때문에 공생애 3년 동안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제반을 제자들을 육성하고 제자들이 의해서 교회라는 제도가 생겨지고, 그 교회가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을 하도록 하려

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마4:13)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신 곳이 나사렛임을 알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곳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원어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고 나오는데, 동네라는 헬라어 ‘가버’와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가버나움은 나훔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활동하셨으므로 온 인류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시작하실 때 교회를 어디에 지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아무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 즉 교통이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마4:15, 16)

스불론땅, 납달리땅, 요단강 저편, 해변

회개하여 천국 백성된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가까왔느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서론으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란 방향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4:19, 20)

어부였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악와같이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재물을 버릴 수 있는 각오, 가족과 직업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과 헌신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재산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재산은 모두 버리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을 하나만 가지고 주님이 오라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그 동안 잃어버렸던 기쁨,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월 중순 '뉴 키즈'란 팝 그룹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10대 소녀들이 김포공항에 나가 피성을 지르며 마중했고 공연 현장에서는 광기 속에서 졸도하는 소녀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어떤 소녀는 뇌사로 죽기도 했다. 요사이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옛향수에 젖어들기도 한다. 이는 음악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느끼려는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허무하게 하고 자살을 유도하며, 사탄의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음악을 통해서도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LA폭동사건도 흑인가수들이 한국 상점을 공격하지는 노래를 불러 과격한 폭동을 더욱더 부추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서 바르게 노래를 불러야 하며 사탄이 대중 음악을 통하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팝 음악(Pop Music)이란 본래 "Popular Music"의 줄임말로, 그 원래적인 의미는 "대중음악"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팝 음악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나라의 대중가요,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칸초네, 미국의 컨트리 음악에 이르기까지 고전음악과 대조를 이루는 모든 통속적인 음악을 가르치는 단어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영어로 가사가 된 소위 "록 음악" (Rock Music)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1. 무분별한 섹스를 권유

현대 문화를 특징짓는 말로 '외설문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영화 포스터, TV, 신문의 소셜, 잡지의 내용, 상품 전전에서 우리는 갖가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본다. 물론 음악도 예외는 아니

충현논단

음악 세계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 - 팝음악을 중심으로 -

김광국 목사(제7교구, 살롬경로대학 지도)



다. 1960년대에 예술가, 음악가, 작가, 비평가들은 대중문화 중에도 록큰롤을 열정적으로 환영하였다. 팝 음악을 일컫는 이 록큰롤(Rock and Roll)이란 단어는 흑인들에게는 본래 성행위를 나타내는 은어이다('Rock'은 '흔들다', 'Roll'은 '구르다'의 뜻). 오늘날 팝 음악의 95퍼센트는 섹스를 묘사하고 있다. 불론디(call me), 애니타 워드(Ring My Bell) 올리비아 뉴튼 존(Physical)의 노래는 성행위를 강조 묘사하고 있다. 프린스의 'sister, sister'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폭력을 찬미

팝 음악에 있어서 섹스에 못지 않게 드러내는 것이 폭력이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따라 다닌다. 펑크록(Punk-Rock) 그룹들은 특별히 폭력과 파괴의 잔혹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면도칼을 지니고 들어오며 한 곡씩 끝날 때 쯤이면 공연장은 온통 피로 물들게 된다. 폭력을 노래하는 영국 출신의 섹스 피스톨즈는 이렇게 외친다. "나는 적 그리스도이며 부정부주의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파괴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그룹 폴리스(Murder by Numbers)는 살인을 권장하며,

앨리스 쿠퍼는 공연장에서 산 병 아리를 죽여 내장을 청중에게 던지기도 하고 살아 있는 사람같이 만든 인형을 조각조각 잘라 피를 튀겨 공연장을 피로 얼룩지게 만드나.

3. 자살 권장

팝 음악은 그릇된 가치관과 허무주의, 특히 자살을 유도하는 가사 내용이 실린 노래가 많다. 블루 오이스터 클트의 노래말(Don't Fear the Reaper)을 보면 처음은 발렌타인 데이와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와서 사랑 노래인 것 같으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죽음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다른 자살자 대열에 끼라고 부추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불론디(Die Young)는 더 늙어서 추해지기 전에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채 자살하라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4. 마약 복용을 예찬

에릭 크랩톤의 "코카인", 잭슨 브라운의 "코카인"이란 노래는 제 목 자체가 나타나고 있듯이, 마약의 복용을 노골적으로 권장한다. 비틀즈(Yellow Submarine), 피터 폴 앤드 매어리(Puff the Magic Dragon), 사이몬과 가펑클(Bridge Over Troubled Water)의 노래는 마약을 통한 흥분과 황홀경을 묘사하는 노래를 불렀다.

5. 이단종교와 관련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의 가사 내용은 얼핏 가스펠 음악처럼 보이나 그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이단종교 교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래이다. 전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에서는 할렘루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조지 해리슨이 노래를 부를 때 여성 백 보컬은 "찬양하라 크리스티나, 찬양하라 라마"라고 노래한다. 크리스티나와 라마는 힌두교 신의 이름이다. 마이클 잭슨은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 추자격 노릇도 했다.

6. 사탄 숭배와 관련

많은 팝 가수들은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다. 샌프란시스코에 1969년에 세워진 사탄제일교회의 교인은 20만이 넘으며 영국의 사탄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악에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사용한다. 그룹 키스(KISS)는 '사탄을 섬기는 기사들(Knight in Satan's Service)'이라는 이름의 첫머리 글자를 합친 이름이다. 이들의 노래 중 "천둥신(God of Thunder)"의 가사 내용은 "나는 귀신에 의해 길러졌다 / 나는 너에게 천둥의 신과 로큰롤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다 / 우리는 너의 순결한 영혼을 훔칠 것이다"라고 노래한다. 에이시/디시(지옥행 고속도로) 오지 오스본(작은 인형) 트위스티드 시스터(지옥에 불타리), 머시 플 페이트(맹세), 주다스 프리스트(악마의 아이), 베놈(사탄과의

동맹)은 노래를 통해서 사탄 숭배를 강요하고 있다.

결론

사탄이 활동하는 팝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며, 자기를 망각하게 하고 급기야 파괴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끝에는 사탄의 자식이나 지옥으로 내몰아버린다. 이런 노래를 음이 좋다고해서 듣거나 영어 공부에 위해서 부르게 되면 영혼의 큰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음악은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준다. 한 연구 논문에서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요절했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다.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를 부르다 죽었으며,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오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41세에 죽었다.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숨졌고, 68년 가을 뇌의 염증으로 29세에 요절한 차승하도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고,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백호는 <마지막 잎새>를 마지막 노래로 불렀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좌우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고난이나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천국의 소망을 안겨준다.

찬송가 가사를 잘 분석해 보라. 1절 시작은 인생의 삶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항상 마지막절은 천국 소망과 힘을 주지 않는다.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자, 부를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로운 삶으로 살게 된다. '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장로칼럼

은혜로운 교회



김방진 장로.
(예배위원회 서기)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든가, 혹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 굳어졌던 마음이 따뜻한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아 내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충현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무로에 있을 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충현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앞으로 이 지상에 충현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동안 은혜로운 교회의 전통도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충현교회는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천 길, 만 길 땅 속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잊어버릴 만하면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외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자만에 빠졌던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은혜로운 말을 주고 받을 때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 있던 갈증이 해소되고 허전했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코신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내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충현교회가 가 기만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집과 자만을 버리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었습니다. 충현교회는 뭐니뭐니 해도 은혜로운 교회의 전통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때입니다.

다음 호 칼럼은 김재명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태신자를 선정하라

- 배가운동 홍보본과 제공 -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라는 말이 전도 운동의 대명사처럼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낯익은 단어로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 교회는 연초 일찌기 배가전도운동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이 운동은 구령 운동이요, 곧 생명 운동이다. 죽은 자 살리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될 일이란 없다.

배가운동은 이 전도운동의 결과이자 방법이 된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배가(倍加)가 된다. 한편 나 한 사람의 생명이 배가됨으로 전도운동이 진전된다. 교회의 배가는 질과 양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영적 자질이 높아질 때, 내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때 나를 통한 양적 배가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을 얻게 될 때 나의 신앙은 성숙을 보게 된다.

우리 교회 배가운동의 출발점은 태신자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태신자를 얻는 일은 배가운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의 태신자를 얻는 일은 많은 전도 계획과 전략과 회의와 세 미나보다 더 확실한 열매이다. 태신자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정한 전도 대상자를 말한다. 이 태신자를 갖는 특권과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다. 그러므로 10명의 회원이 있는 구역이라면 적어도 10명의 태신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태신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1. 태신자는 믿음으로 선정해야 한다.

태신자의 현 위치는 교회 밖이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는 완고하고 무뎌지고 무관심한 이웃을 낙심치 말고 열린 마음과 긍정적 시야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교회 태신자운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신 이웃을 인도하기로 결단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산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2. 태신자는 관계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현대인의 문제의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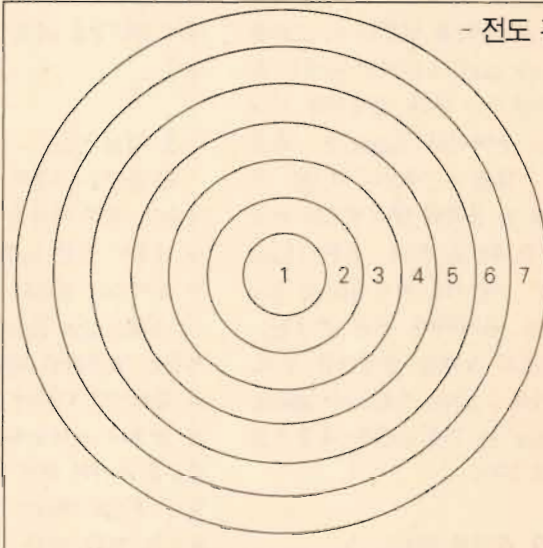
이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 사회적 관계야말로 복음 전도의 최상의 수단이 된다. 어떤 기존 신자도, 어떤 불신 이웃도 주위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생활 양식 전도는 이미 수립된 관계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빌립보의 간수는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모든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다리를 놓고

도(나침반사 간행)에서 생활양식전도 방법을 말하면서 전도를 위한 '관심의 동심원'을 제시하였다. 복음은 인접한 관계의 노선 위로 움직여간다.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가진다. 심지어 나와 다툼 적이 있는 친구, 나를 오해했던 이웃, 갈등하고 있는 고용인과 고용주도 태신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눈을 들어 나의 태신자를 발견해 보자. 가족 중 불신자, 전에 믿다가 낙심한 이웃, 친척, 친구, 옆집 사람, 세든 사

- 전도 관계의 동심원 -



람(혹은 주인), 직장 동료, 반상 회원, 주변 가게, 자녀 친구들 부모, 공무원, 이사인 사람, 동창, 단골 손님, 신문 배달원, 거래처, 우유나 야쿠르트 아주머니, 화장품 판매원, 경로당 노인, 교향 사람, 취미 그룹 회원... 이들은 이제 나의 태신자

가 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태신자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3. 태신자는 동심원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오스카 뭉스는 그의 저서 '관계중심전

바울8지회 육군 충성교회 방문

바울전도회 8지회(회장 박중현 집사) 회원들은 지난 6월 10일 경기도 화천의 육군 충성교회(군목 백재익)를 방문하여 부대 장병 및 가족(연대장 정근수 장로)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군선교 활동에 남전도회원 모두가 참가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바울8지회원들은 이 부대 장병들을 위하여 성경책과 찬송가 각각 백권씩을 기

증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군선교 사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4교구 야외예배

- 일 시 : 6월 20일 낮 12시 30분
- 장 소 : 강남구 선릉
- 준비물 : 도시락
- 5개 지역별 및 전도화별 다채로운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 풍성한 상품 등 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주의 기도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와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해주시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다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태신자 갖기 6월 28일, 7월 5일 카드 작성, 교구 배개, 구역장교육, 충헌금요찬양을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전교).
5. 충헌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금과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에 되게 하사하여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교회 배가를 위해 헌신할 좋은 여전도사를 보내주소서.
8.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요청하실 성도는 기획조정실로 기도 제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청빙

우리 교회는 배가운동 전개에 따른 교인 증가를 위하여 부교역자를 청빙키로 한 바 있다. 이에 40여명이 지원하여, 인사위원회와 당회가 이들을 심사하여 여덟명의 부목사를 청빙게 되었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 ① 유창무 목사(43세) 수도성경전문대, 충신대신대원 연수와 졸업
- ② 정광욱 목사(34세) 충신대학 및 신대원 졸업
- ③ 이종대 목사(45세) 서울교대, 충신대신대원 졸업

- ④ 김수상 목사(39세) 영남대, 충신대신대원 졸업
- ⑤ 이용두 목사(39세) 계명대 및 대학원, 충신대신대원 졸업
- ⑥ 조윤재 목사(42세) 서울신대, 충신대신대원 졸업
- ⑦ 성봉환 목사(38세) 충신대학 및 충신대신대원 졸업



유창무 목사



정광욱 목사



이종대 목사



김수상 목사



이용두 목사



조윤재 목사



성봉환 목사



배가운동

김웅 학생(초등3부)

배가운동

김재원 학생(초등3부)

우리 교회 전체가 배가운동을 하였다. 우리 초등3부의 목표는 362명이다.

배가운동은 교회를 안다니는 친구들을, 철이 자라서 맺는 힘같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시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는 기도하여 그런 능력을 얻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라도 배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